

# LNG선 잇단 발주에 국내 조선업, 글로벌 성장 청신호

4분기부터 매출 성장 회복세  
수주 잔고 많아 내년도 기대  
IMO 황산화물 규제 앞두고  
LNG 운반선 수주 증가할 듯

국내 조선업계가 글로벌 해운시장 회복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 증가로 향후 성장에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1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들은 올해 4분기부터 매출 성장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조선사들의 2018년 수주 목표는 320억 달러이며 수주 달성률은 240억 달러인 75%에 달한다. 현재 수주 잔고가 많아 경기변화에 무관하게 오는 2019년에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오는 2023년이던 지난 2007년 호황기때 만들어진 선박들의 선령이 15년



현대중공업 해양공장

을 넘어가 교체주기에 도달하기 때문에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오는 2020년 1월부터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SOx) 배출규제도 조선업계 성장에 크게 한 몫하고 있

다. 환경규제가 친 환경선박 신조선 발주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조선업체들은 이중연료엔진, LNG추진엔진, 소형 LNG 운반기술, 스크러버 등에서 세계 1위를 점유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국내 조선사들의 LNG 운반선 시장점유율이 95% 이상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LNG 운반선 시장은 글로벌 경제에 덜 민감하지만 글로벌 환경정책에는 민감하다는 분석이다.

선박가격 상승도 매출액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최저점을 찍은 선가는 2017년부터 회복하며 향후 현재 선가의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신조선 가지는 120포인트로 현재 130포인트까지 올랐으며 오는 2019년에는 135~140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그동안 국내 조선업은 내수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버텼다. 이는 중국 조선업체와 달리 자국 경제지표 둔화에 대한 내성을 지니게 만들었다. 또한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낮추는데 성공하며 중국이 가지고 있던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빼앗고 있다. 중국 조선업체의 수주는 중국 정

부의 재정지원 축소로 급감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 2016년 수주절벽 이후 조선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조선업체들은 3년도 되지 않은 시간동안 20만명의 근로자를 10만명으로 줄였다. 일자리를 지킨 근로자들도 연평균 6%씩 임금을 삭감 당했다. 근로자들에게는 가혹한 환경이 되었지만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에는 효과가 있었다. 40% 이상 감축된 고정비와 연평균 2% 절감된 원가율은 최근 높아진 후판 가격을 상쇄하고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4년 만에 5000억원 규모의 해양플랜트를 수주했다. 국제유가(WTI)가 배럴 당 60달러를 넘어가면서 생겨난 변화로 풀이된다. 해양플랜트 1기가 LNG선 10척보다 수주금액이 크기 때문에 해양플랜트의 수주 재개는 국내 조선업체들의 생산규모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한진중, 해군 차기고속정 4척 수주

영도조선소-방위사업청  
2741억 규모 합정건조계약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차기고속정 4척을 수주했다.

한진중공업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해군의 차기고속정(PKX-B) 9번함부터 12번함까지 4척을 총 2741억원에 수주하고 13일 합정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발주된 차기고속정 1번함에서 12번함까지 총 12척, 8000억원 상당의 물량을 모두 수주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4년 선도함 건조사로 선정된 데 이어 2016년 후속함 3척을, 지난 해 다시 4척을 추가로 수주해 영도조선소에서 건조 중에 있다.

차기고속정 사업은 지난 1999년과 2002년 당시 제1, 2연평해전 승리의 주역이었던 해군의 참수리 고속정을 대체하



해군 차기고속정

기 위한 200톤급 고속정 건조사업이다. 130mm 유도로켓, 76mm함포, K-6 원격사격 통제체계, 한국형 전투체계 등을 탑재해 기존 고속정 대비 화력, 명중률, 생존성 등 전투력을 강화했고 기동성과 탐지, 방어능력까지 대폭 향상된 차세대 전투함정으로 꼽힌다.

해군은 차기고속정을 향후 운영하급 유도탄고속함과 함께 전방함대에 배치해 최전방을 사수하는 임무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 CCTV 속 사람 찾아주는 AI 서비스 론칭

SK㈜ C&C  
'에이든 얼굴인식 서비스'  
공공기관 등 한정해 제공

SK(주) C&C가 자사의 인공지능(AI) 얼굴 인식 솔루션(FRS)을 빌려 쓸 수 있는 '에이든 얼굴인식 서비스'를 14일 론칭했다.

에이든 얼굴인식 서비스는 웹 기반 서비스로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나 연동은 물론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 등이 필요 없다.

CCTV만 있다면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 '에이든 얼굴인식 서비스'에 접속해 CCTV 속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찾고자 하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등록 후 CCTV 영상 파일만 업로드 하면 수 분내 영상 속에서 사람을 찾아 주고 시간별 동선도 알려 준다. 사진 속 얼굴을 3D모델로 변환, 다양



SK(주) C&C가 자사의 인공지능 얼굴 인식 솔루션(FRS)을 빌려 쓸 수 있는 '에이든 얼굴인식 서비스'를 14일 론칭했다.

/SK(주) C&C

한 각도의 얼굴을 가상으로 생성해 고개를 숙이는 등 얼굴 정면을 볼 수 없는 환경에서도 얼굴을 정확히 인식해 낸다.

서비스 대상은 공공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공기관과 법인으로 한정했다. 사용료는 월 80만~100만원이

며 서비스 론칭 기념으로 12월 31일까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SK(주) C&C의 인공지능 에이브릴 포털에 접속해 법인 회원가입 후 솔루션 메뉴에서 에이든 얼굴인식 서비스를 찾아 이용하면 된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 LG유플러스, IPTV서 넷플릭스 서비스

넷플릭스와 단독 파트너십 체결  
'U+tv'서 내일부터 콘텐츠 제공

LG유플러스가 국내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와 손 잡고 콘텐츠 제공에 나선다. LG유플러스의 가입자들은 안방에서 인터넷TV(IPTV)를 통해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자사 IPTV인 'U+tv'에서 넷플릭스 콘텐츠를 16일부터 제공한다. 내달 중 U+tv 사용자 인터페이스(UI)도 개편해 내달 중 선보인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190여개국, 1억 37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우리나라에는 2016년 진출해 영화 '옥자', 예능 프로그램 '범인은 바로 너', '유병재의 스탠드업 코미디 스페셜', 'YG전자' 등 국내 자체제작 오리지널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IPTV 부문 단독파트너십 계약에



모델들이 LG유플러스의 '넷플릭스' 콘텐츠 독점 제공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따라 국내 IPTV중에서는 LG유플러스에서만 넷플릭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U+tv 이용 고객들은 국내 자체제작 넷플릭스의 '하우스 오브 카드', '기묘한 이야기',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등 오리지널 시리즈와 해외 콘텐츠인 미드, 영드, 영화, 다큐멘터리까지 IPTV 대형 화면에서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UHD2 셋톱 이용고객 107만명을 대상으로 넷플릭스를 우선 제공하고 추후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 SKT, 명동 일대 '세계 5G 1번지'로 조성

5G상용망 기지국 구축현장 공개

SK텔레콤이 5G 기지국을 공개했다. 명동 일대를 '세계 5G 1번지'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SK텔레콤은 14일 서울 명동에 설치한 5G 상용망 기지국을 소개했다. 다음달 1일 세계 최초 5G 전파 송출을 15일여 앞둔 행사다.

이날 공개된 기지국은 SK텔레콤이 설치한 전국 5G 기지국 중 최초로 조성한 곳 중 하나다.

높이는 약 1m, 폭은 23cm다. LTE 기지국(최소 10㎡)보다 훨씬 작다. 5G 기지국은 LTE보다 2~3배 많이 필요한 만큼, 전혀 새로운 형태로 구현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무게도 24kg에 불과하다.

그러면서도 기능은 더 높였다. 안테나는 LTE 기지국(4개)보다 8배나 늘어난 32개가 들어간다. 전파를 특정 위치로 집



SK텔레콤은 종로에 설치한 5G 상용망을 공개했다.

/SK텔레콤

중하는 '빔포밍'과 이동하는 물체를 추적해 전파를 쏘는 '빔트래킹', 그리고 다수에 데이터를 동시 전달하는 '다중 사용자 MIMO' 등이 추가됐다.

SK텔레콤 '5G AI 네트워크'는 이 기술을 활용해 효율을 극대화한다. 유동인구를 사전 예측하고 상황에 맞게 통신 품질을 자동 최적화하는 등이다. 트래픽 변

동을 감지해 기지국 안테나 방향과 전파 송출 구역도 스스로 조정한다.

명령은 서울 성수구사에 있는 '중앙 유닛'이 내린다. 현장 기지국에서 다양한 정보를 모아 기지국 전체 트래픽을 최적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건물 내부 품질을 높이는 기술도 소개됐다. '5G 인빌딩 토탈 솔루션'이다. 건물 내부 중계 장비 데이터 트래픽 처리 용량을 LTE 대비 최대 16배 늘려준다. 건물 내부에 품질 저하가 발생하는 경계 구간도 최소화해준다.

SK텔레콤은 명동 일대를 '세계 5G 1번지'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명동은 유동인구가 많아 최적화가 쉽지 않은 지역이다. 여기에서 얻은 노하우를 전국 5G 망 구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세계 ICT 관계자를 초청해 한국의 우수한 네트워크 경쟁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